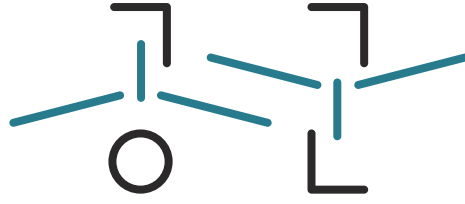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9
03
4 8 9

<http://afine.co.kr>





COVER STORY

시그너스, 날개를 펼치다

액션영화를 보면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속도를 맞춰서 달리며 사람이 건너가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레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관객들의 마음도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나는 두 대의 항공기가, 3차원 공간에서 급유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놀랍게 느껴집니다. 공군이 새로 도입한 '공중급유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편, 공중급유기 전력화를 통한 공군의 도약도 만만치 않게 놀랍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 KC-330과 이를 운용하는 공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지난 1월 30일(수),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거행된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
(관련 기사 : 6~19쪽)



05	화풍지설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에 광복군 최용덕을 기리다
06	기획특집	시그너스, 날개를 펼치다
14	르포르타주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 제261정비중대
20	내 옆의 공군인	사법연수원 수석, 김진수 예비역 중위
24	그날, 우리 하늘	비거(飛車)에 투사된 욕망
26	공군의 철학과 사상	『코메트』가 전하는 말 : 연재를 마치며
30	지금 이 순간!	2월의 참모총장동정 & 공군 소식
<hr/>		
34	담벼락	밥
36	책 읽는 공군	『시대의 소음』 & 『매혹하는 식물의 뇌』
<hr/>		
38	지피지보 공군인물	김철남과 손기중, 이 둘의 인연은?
42	우주의 이해	우주개발 : 2편
44	생활 타이포그래피	정보의 위계와 그룹
46	공군인의 마음 건강	심리적 응급처치란?
48	첫 독자의 편집후기	발 300mm, '걸기 교주' 하정우의 '걷는 철학' 『걷는 사람, 하정우』
50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베게티우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52	Hollywood English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54	트렌드가 보인다	겨울에 살 찌는 이유? '체온이 떨어지면, 살이 찐다'
56	생각하는 그림	평점사회
58	기준의 기준	나 이렇게 산다



표 지(앞) 시그너스와 리시버들
사 진 공보과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9년 3월 1일(통권 제489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왕근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중령 정기완
기 획·편 집 대위 이요셉,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9020080)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에 광복군 최용덕을 기린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민초들의 함성이 되살아나는 3월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공군 창군 70주년이 겹치는 올해의 3·1절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창설과정에 일본군 출신 인사들이 주류로 참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공군 창군 주역 7인도 독립군과 일본군 출신 등이 조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종 친일 문제가 대두될 때 몇몇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군의 연원을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둘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군의 창설과 육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최용덕 장군이 공군 창군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월간 『공군』 18년 10월호 화풍지설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과 공군의 결의’ 참조).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36년이었고 해방 후 그 두 배가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친일문제는 아직도 영겨있는 실타래처럼 역사의 그늘에 숨어있습니다. 친일 문제는 그 시기를 살아보지 못한 지금의 우리들이 재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일 것입니다. 창군주역 중 1917년생 동갑내기인 김정열, 박범집, 이근석은 모두 대동아 전쟁에 일본군 신분으로 참전했고 김정열 장군의 친동생인 김영환도 일본군 포병 중위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1903년생인 장덕장은 일본에서 비행술을 배우고 일본 항공사 조종사로 활동했습니다. 창군 7인 중 독립운동을 했던 최용덕과 이영무 장군을 제외한다면 다섯 명이 모두 일본을 백그라운드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초대총장인 김정열 장군의 집안은 3대(조부, 백부, 부친, 본인)가 일본 육사를 나온 집안 내력으로 “반도(半島)의 자랑 우리의 군국가정(軍國家庭)”이란 제목으로 당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1943. 8. 2.)에 돈암정 115번지라는 집주소까지 소개되는 등 일제가 친일가문임을 크게 부각한 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랄까, 해방 후 바로 그 김정열 장군의 집(現 성북구 동선동 2가)에서 독립운동가 최용덕 장군을 좌장으로 위에 거론한 7인이 모여 대한민국공군을 힘 모아 만들자는 결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이 우리 공군의 발원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과연 평생 항일 무장투쟁에 진력했던 최용덕 장군이 그들의 해방 전 이력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1898년생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최용덕은 자신과는 달리 식민지 체제하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들의 운명을 관용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제가 직접 뵈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정열 장군 사모님께서도 최용덕 장군은 남편보다 연배와 경륜이 매우 높으신 분으로 창군멤버들 모두 그분을 잘 받들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광복군과 일본군 출신이 뒤섞인 창군 주역 7인의 합심(合心)은 누구의 강요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대륙을 누비며 독립투쟁에 젊음을 바친 최용덕 장군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모총장실 입구에는 역대 총장들의 지휘방침이 게시되어 있는데 1대부터 3대 총장의 지휘방침은 간명한 두 글자 단결(團結)입니다. 최용덕, 김정열 장군이 함께 공유한 가치였습니다. 지금의 후배들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할 선배들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공군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군의 아버지로 추앙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독립된 조국에 공군을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런 욕심 없이 살다간 영원한 광복군 최용덕 장군임을 3월의 만세 소리와 함께 공군인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AF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규



시그너스, 날개를 펼치다

대한민국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
굳건한 영공방위를 위한 공군의 큰 도약이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시그너스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인포그래픽을 준비했다.







공군은 지난 1월 3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항공기 명명식,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공군 참모총장 기념사와 국방부 장관 축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의 한반도에서 강한 힘만이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그너스(Cygnus). 대한민국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 KC-330의 별칭이다. 공중급유기란 '하늘을 나는 주유소'로 불리는 항공기이며, 주요임무는 공중에서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하는 것이다. 공군은 1993년 최초 소요제기 이후로 공중급유기 전력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1월 30일(수), 5비에서 시그너스 1호기 전력화 행사를 거행했다. 공중급유기는 올해 말까지 3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그너스의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2,600m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5,320km, 최대 연료 탑재량은 약 245,000파운드(약 111톤)에 육박한다. 이는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 경우 10여 대, KF-16 전투기 경우 20여 대에 급유할 수 있는 양이다. 그동안 F-15K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30분, 이어도에서 약 20분, KF-16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10분, 이어도에서 약 5분간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공중급유를 실시할 경우 작전임무 가능시간이 공중급유 1회당 약 1시간씩 증가하게 된다. ^{AF}



01	02
	03
	04
	05
	06

01. 시그너스에 콘택(Contact)하고 있는 F-15K
 02~06. F-15K 후방석의 시선으로 본
 공중급유기 콘택 장면

KC-330

* 시그너스 (Cygnus)

*시그너스는 '백조자리'라는 뜻으로서 KC-330 공중급유기의 별칭이다. 시그너스의 이착륙 모습이 백조의 날갯짓을 떠올리게 하고, 공중급유하는 모습은 대열을 이뤄 비행하는 백조 무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필요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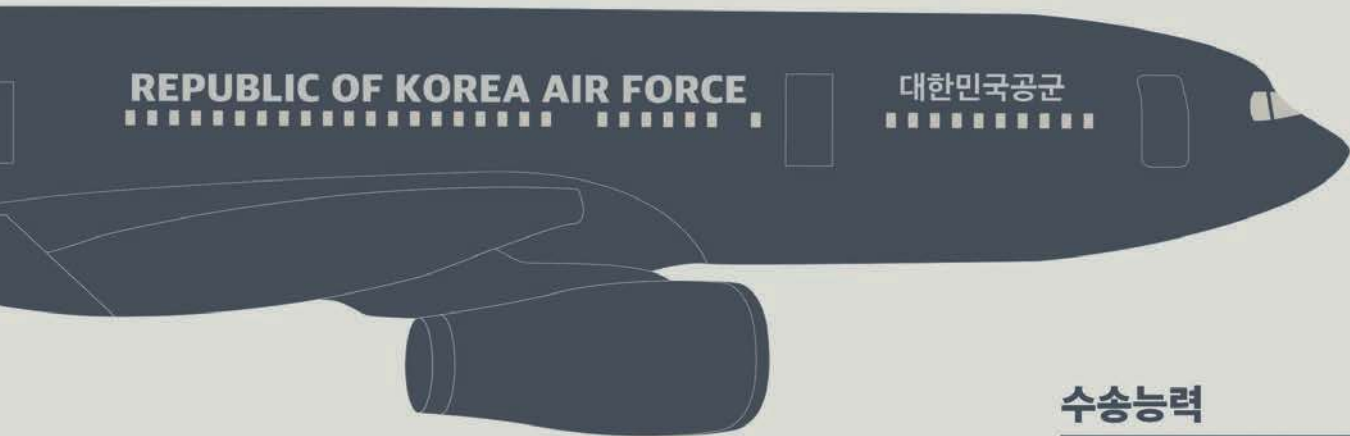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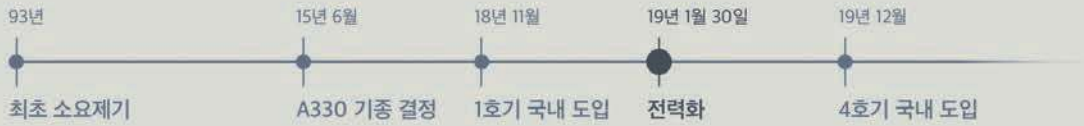
F-15K 10여 대



KF-16 20여 대



최대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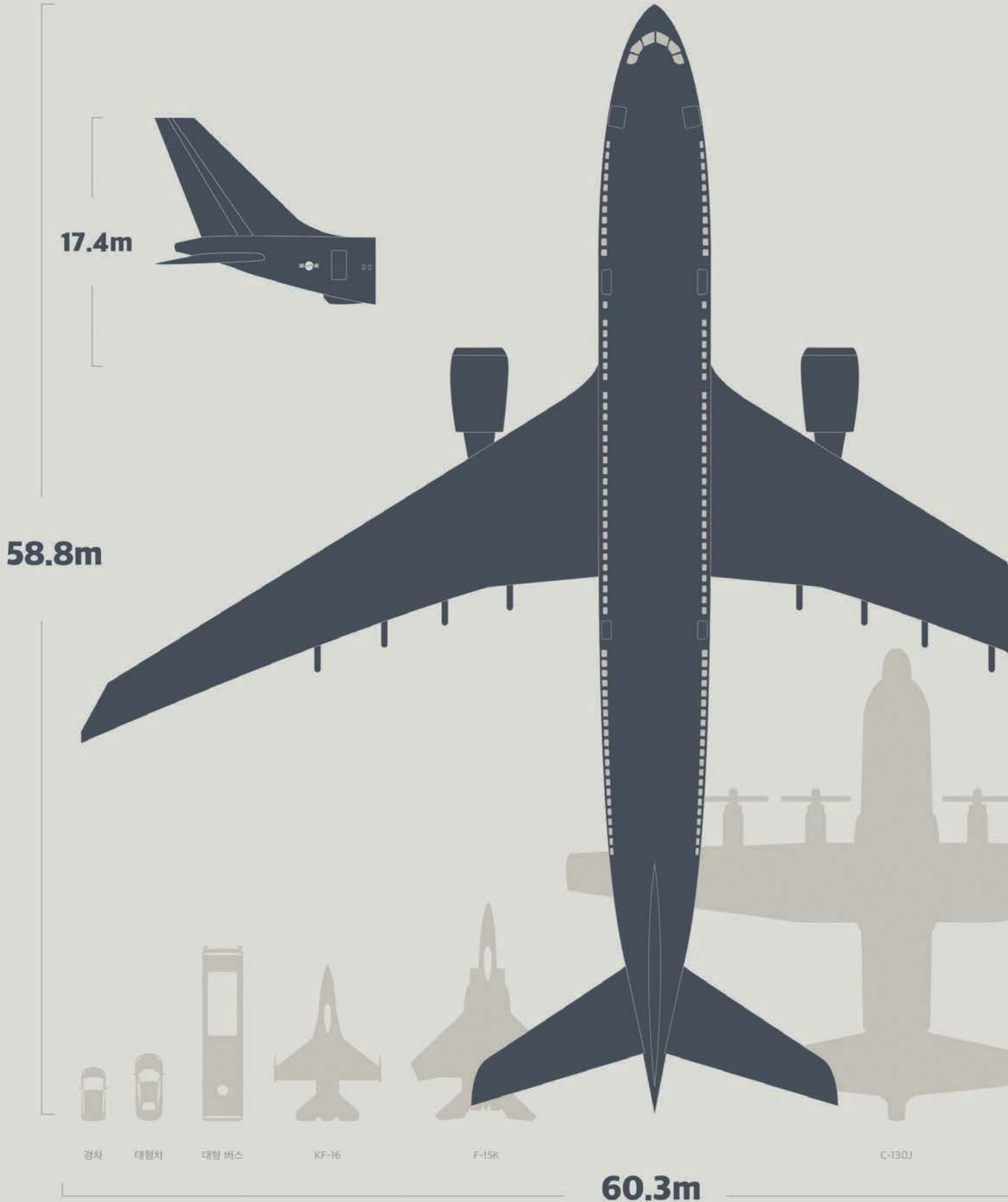
수송능력



순항고도 / 항속 거리



제원



기대 효과



작전 가능 시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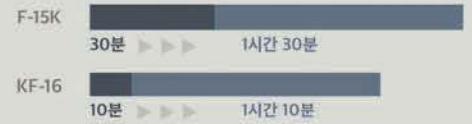
1회 공중급유 시 임무시간 1시간 증가

독도와 이어도에서
작전시간이 획기적으로 연장

이어도 작전시간



독도 작전시간



국내외 연합작전
수행능력 신장



재외국민
구조 활동



국제평화유지활동과
해외재난 지원



KC-330
Cygnus



글
대위 박지완



사진
상사 김기호(5비)
병장 차준영(5비)





백조를 띄우는 사람들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 제261정비중대

영화 '덩케르크(Dunkirk)'를 본 적 있는가? 주인공 파일럿은 정찰 비행을 하던 중 적기를 마주치고, 치열한 전투 끝에 모두 격추시킨다. 그러나 그는 지상군을 지키느라 모기지로 귀환할 연료까지 다 소진해버려 결국 적지 해변에 불시착하게 된다.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대단한 명장면으로 꼽힌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이런 영화 같은 일에서 자유롭다. 공군의 오랜 숙원,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랑스러운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Cygnus)를 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와 제261정비중대를 찾았다.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비행대장 장동철 소령(좌)과 첫 훈련비행을 함께 실시한 신용훈 소령(우).



비행 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동철 소령(오른쪽)과 신용훈 소령(가운데). 항공기 제작사에서 파견된 경험 많은 교관과 소통하며 임무를 숙달하고 있다.

장동철 소령은 공중급유기를 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의 비행대장이다. 비행대대에는 대대의 여러 일들을 관리하는 대대장 아래, 특별히 비행임무를 더욱 살뜰하게 챙기는 비행대장이 있다. 장 소령은 F-4E, KT-1, E-737 등 공군이 운용하는 다양한 항공기를 조종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의 첫 비행대장으로 보임됐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중급유기가 도입되어 초도 요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공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되는 첫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KC-330이 우리 공군 최초의 공중급유기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임무요원들은 제작사인 Airbus가 위치한 스페인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KC-330은 민항사에서 운용 중인 A330을 개조해서 만든 항공기이기 때문에, 해외 교육 전 아시아나항공에서 A330 지상 교육을 받고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페인에서도 초기 적응 이후에는 별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지상학술과 시뮬레이터로 비행교육을 받고 제작사에서 경험 많은 교관 조종사를 한국까지 파견해 교육해주고 있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 소령의 말이다.



비행 전, 시그너스의 조종석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장동철 소령.

비행이란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조종만 하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임무요원들은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다. 비행일 전날, 비행 스케줄이 확정되면 해당 편조(조종사, 급유통제사, 기상적제사)가 모여서 비행을 준비한다. 공중급유 임무에 몇 대의 전투기에 연료를 급유하는지 확인하고 임무에 사용할 연료량을 계산하여 항공기 무게 및 무게 중심을 확인한다. 또한 내일 임무 구역, 비행 임무 시간(급유를 위해 각 전투기별로 만나는 시간 등), 구역 기상 등을 확인하고 비행계획컴퓨터(MPS, Mission Planning System)로 비행임무를 계획한다. 정비사들은 계획을 바탕으로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한다. 항공기 무게 및 무게중심은 비행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연료 주입 작업은 성공적인 비행 임무수행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전력화 이후 첫 비행. 모든 대대원들은 임무 숙달을 위해 비행 준비에 함께 참여했다.





비행 전 급유통제사석에 앉아 임무를 준비하고 있는 이동주 중사



교범을 보며 임무 절차를 숙달하고 있는 이 중사. 급유통제사의 작은 실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들은 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

장 소령은 “공중급유비행대대는 타 기종 항공기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비행대대와 상호 교류가 많다.”며 “우리와는 다른 특성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행대대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점이 좋고, 무엇이든 처음 시작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또한 내가 지나온 발자국이 대한민국 최초 공중급유기 KC-330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지금의 대대생활이 체계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그너스의 조종석 뒤에는 특별한 자리가 한 쌍 더 있다. 바로 급유통제사의 자리다. 급유통제사는 공중급유기에 탑승해 항공기의 공중급유 관련 계통을 제어하고 실제로 붐스틱을 조종해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중에서 두 대의 항공기가 아주 가까이 날며 연료를 공급하는 일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조금의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유통제사는 공중급유 시뮬레이터를 통해 피나는 훈련을 한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임무환

급유통제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조작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중사. 시뮬레이터는 리시버(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미세한 움직임도 자세히 표현해 실제 임무와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다.

경을 최대한 재현하여 화면과 조작버튼 구성도 동일하다. 버튼도 실제와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급유통제사는 주로 급유장치 조작 및 통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터로 연습한다. 비상절차도 시뮬레이터에서 가상으로 시현이 가능해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침착히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이동주 중사는 261공중급유비행대대의 급유통제사로, 역시 스페인에서 급유통제사 교육을 받고 돌아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가 항공기에서 수행하는 임무들이, 찰나의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 중, 사소한 것 하나만 무너져도 도미노처럼 큰 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 중에 많이 들어왔고, 배우고 익힐수록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적당한 긴장감과 자신감이 생겨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말이다.

이 중사가 보는 시뮬레이터 화면은 3D 입체이기 때문에 편광선글라스를 착용해야 선명하게 보인다. 실제 임무 시에도 급유통제사들은 3D 카메라로 구현되는 입체화면을 통해 리시버와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사진은 편광선글라스를 덧대서 촬영한 시뮬레이터 화면이다.





01



02

- 01. 항공기 엔진 팬 블레이드를 점검하고 있는 최재우 상사. 시그너스는 사람 키보다 더 큰 터보팬 엔진을 좌우에 하나씩 장착하고 있다.
- 02. 시그너스는 기체가 크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는 리프트가 꼭 필요하며 정비사들은 무전기도 착용한다.



시그너스의 공중급유장치인 BOOM을 점검하고 계통에 물을 보급하는 정비사들과 최 상사. 영하의 날씨에 칼바람이 부는 활주로에서도 정비에 여념이 없다.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할까?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든 과정에 정비사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다. 최재우 상사는 공중급유기 1호기의 정비기장으로 항공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일선정비(비행 전·중간·후 점검)를 담당하고 있으며, 추후 화물적재사/객실승무원의 역할까지 겸직해 화물 및 인원공수 임무를 수행할 때 화물의 안전상태 점검과 객실 내 안전상태 점검, 비상상황 시 비상탈출 절차 수행, 객실 내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정비사의 일과는 만만치 않다. 특히나 공중급유기는 기체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든 것이 'OK'될 때까지 정비사는 활주로를 떠날 수 없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도,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더위 아래서도 예외는 없다. 말 그대로 항공기를 키우는 집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항공기의 모든 부분을 알고,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상사는 2014년 공중급유기 기종선정 때부터 시험평가요원으로 선발되어 공중급유기 전력화를 준비해왔다. 이후 처음으로 공중급유기를 정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공중급유기 도입요원에 지원해 스페인으로 건너가 교육을 마치고 1호기 정비기장을 맡게 되었다. 최 상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급유기 정비사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정비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는 “제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준 국가에 보답하고 싶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자부심을 느낀다.”며 웃었다.

“후배 정비사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지식과 기술을 물려주고 싶고, 나중에 공중급유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요원들의 노력이 있어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최 상사의 말이다.



항공기 조종석에 앉아 모든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정비사들.



대한민국 공군의 첫 번째 공중급유기 정비기장인 최재우 상사. 그는 자신의 역할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저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어 이것을 통해 후배조종사들이 비행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하여 정진하고, 제가 걸어갈 길이 앞으로 저를 따라 걸어올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가 허락하는 한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군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 전력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공중급유기를 운용하는 이들의 다짐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드디어 시그너스라는 큰 날개를 갖게 되었다. 이 날개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들의 뜨거운 심장이 함께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첨단 항공기의 도입은 공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영공 수호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중급유기보다 더욱 믿음직한 것은 여기에 피와 땀을 쏟는 이들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AF**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시그너스. 백조가 활짝 날개를 펼친 듯하다.



제2화 사법연수원 수석 김진수 예비역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의 이름으로 보내는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을 만나다.



사법연수원 수석 김진수 예비역 (항과고37기, 학사128기)

재정장교 전역 기념사진 ('15. 6. 30.)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진수 예비역 ▶
 재정장교 시절 사용했던 부착물 ▼



제58회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김진수 예비역은 2008년 항공과학고등학교(37기)를 1등으로 졸업하였고, 같은 해 부산대 기계공학부에 입학했다. 대학교 3학년인 2010년에는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2년 공군 재정장교(학사28기)로 임관하여 제19전투비행단에서 3년간 복무했다. 전역을 6개월 앞둔 2015년 1월 사법시험 1차를 합격했고, 2015년 6월 전역 후 1년 동안 신림동에서 공부하여 마침내 2016년에 2차 시험을 합격했다. 이후 2017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이번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기계공학부, 회계사, 재정장교, 사법시험 합격. 단어들의 나열만으로도 쉽 없이 달려온 그의 열정 넘치는 삶이 느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법조인을 꿈꿨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단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전문성을 기르다보니 다음 단계가 보였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다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한다.

공군과의 인연

항공과학고등학교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던 건데요.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립심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사법시험을 합격한 것도 고등학교 때 교육받은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됐죠. 대학교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땀고, 그 자격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공군에 입대하여 재정장교로 임관했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19비에서 근무하게 됐죠.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은 용역 계약 및 관리였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간혹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전임자가 했던 걸 찾아보거나, 법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나 계속 물어보기도 곤란한 까닭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답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그러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회계사 시험 준비하면서 법학이라는 학문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 그때 어떤 강사가 나중에 시험 마치면 민법도 한번 공부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서 공부하게 됐고, 근거를 가지고 일하게 되니까 전문성도 생기고, 새로운 종류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사법시험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첫 번째 큰 시험, 회계사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플래카드 때문이었는데요, (웃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대학 캠퍼스에 각종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 합격 축하 플래카드가 많이 붙잖아요. 그런걸 보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빛도 모르고 내 이름 석 자를 거기에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소 경제나 금융, 회계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 분야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렇게 2학년 1학기부터 시험 준비를 해서 3학년 2학기에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꿈에 그리던 플래카드를 제가 직접 걸지는 않았고요. (웃음) 제 친한 친구가 학교 입구에 붙여줬어요. 플래카드에 '기계공학부 08학번 회계사 시험 합격'이라고 쓰여 있으니,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기계공학부에서 회계사 시험을 보냐면서 저거 오타 아니냐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 회계사 시험 당시 공부했던 책들

▼ 회계사 합격 플래카드



재정장교로 근무하면서 공부하기는 쉽진 않았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7시 정도 됐는데, 근무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바로 잠을 자고 밤 12시나 1시쯤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6~7시간 정도 공부하고, 다시 잠깐 잠을 자고 출근을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어요. 첫 해에는 경험삼아 시험을 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번 시험도 떨어진 거예요. 슬슬 위기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왜냐면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시험 볼 기회가 두 번 밖에 남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전역을 6개월 앞둔 2015년 1월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붙였어요. 그때 이걸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전역 후에는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2차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법시험 2차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2회 주어지는데, 두 번 다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봐야 해요. 그런데 첫 시험은 떨어졌어요. 게다가 점수도 낮게 나와서 '내가 이걸 1년 더 공부한다고 붙을 수 있을까?' 싶었죠.

때문에 절박하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서 보고, 합격자 발표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전전공공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발표 날이 되어 확인해보니까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수석으로 수료하게 됐죠.

사법시험 준비



대법원 앞에서 기념사진



◀ 공부할 때 사용했던 펜들
▼ 공부시간을 입력한 표

	공부시간	비율	남은시간(총)
헌법	431:30	86.30%	68:30
행정법	458:35	91.72%	41:25
상법	525:30	105.10%	0:00
민소법	565:21	113.07%	0:00
형법	469:55	93.98%	30:05
형소법	515:39	103.13%	0:00
민법	613:38	81.82%	136:22
합계	3580:08		

시험을 잘 치는 4단계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이해 단계에는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1단계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과목의 교과서를 한 번도 펴 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2단계는 책을 한 번 읽어 봤지만, 내용이 어려워워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 단계가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2단계고요. 3단계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느끼기 쉬운 단계인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마지막 단계인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단계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4단계인데, 이 단계는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더라도 어떤 책,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단계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만 찾아서 보면 되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보면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의 방향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 시간이 좀 있을 때 정보 수집을 많이 하는 등 계획 세우는 단계에 공을 들였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져서 짠 계획보다는 여유 있을 때 짠 계획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겠죠?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인데,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요. 시작을 해서 결과를 내기까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첫 시작 단계가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AF](#)

LIVE PAGE(내 옆의 공군인)는
공군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하늘

비거(飛車)에 투사된 욕망



▲ 식민지 시대 잡지 『청춘』 제4호(1915년 1월호)에 실린 비행선 삽화. 비행선에는 '공중비행'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 일러두기 : 飛車의 정확한 독음이 '비거'인지 '비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한제국기에 飛車를 한글로 '비거'로 표기한 예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이를 '비거'로 표기했으나, 이 글에서 직접 인용한 글에 당초 '비차'라고 표기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었다.

1915년 1월, 식민지 시대의 잡지 『청춘』(靑春) 제4호에는 「비행기의 창작자는 조선인이라」라는 자못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많은 이들이 최남선이 썼다고 추정하는 이 기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행 기술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서양의 '항공술 발달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제목이 암시하듯 주된 관심은 다른 데 있다. 이 기사의 저자는 조선시대에도 문헌으로써 입증 가능한 '실제적 비행기', 즉 진정으로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한 인물이 있다고 믿는다. 서양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의 주변국 역사에서는 항공술 발달사를 찾기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한층 중요해 보인다. 저자는 중국에는 '비공 사상'(飛空思想)이 있었으나 '실제적 비행기'는 없었으며, 일본에는 검토할 만한 유관 사실조차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조선에 '실제적 비행기'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 『청춘』의 기사는 몇 가지를 제시한다. 영조대 인물 신경준(申景濬)이 임진전쟁기 비거

(飛車)가 사용되었다고 기록한 내용, 정평구(鄭平九)란 인물이 임진전쟁기 비거를 만들어 탔다는 전승, 그리고 이규경(李圭景)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비거변증설」(飛車辨證說)에서 윤달규(尹達圭) 등이 비거를 만들었다고 적은 기록 등이 그러한 증거다. 저자는 이들 기록이 탄탄한 증거가 아님을 인지했지만, 비행에 관련된 중국의 몇몇 기록을 '무계한 말'이나 '소문'이라고 비판한 것에 비해 사뭇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우리의 저자는 용감한 주장의 함의를 숨기지 않는다. "비행기라는 시대의 신(新) 총아도 우리에게서 곱팡내가 나다시피 하는 묵은 것임을 말함으로써... 창작자의 공명(功名)은 마땅히 우리 것일 것을 발표함이어니와 또한 이때 모르고 잠자는 이에게 시대에 대한 새 자극을 주지는 미의(微意)도 없지 아니하노라." 조선이 일본 제국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신음할 때, 이 주장은 자부심을 고취하고 나태함을 타파할 자극을 주고자 의도된 것이었다.

이 논변은 당시 지식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언론 매체에서 재생산되었다. 『신한민보』(新韓民報)는 본래 국한문인 『청춘』의 기사를 1918년 순 한글로 번역하여 전재하는가 하면(1918년 1월 17일), 『개벽』(開闢)은 서양의 비행기가 “몇 백 년 전에 정평구 씨가 발명하였던 것”이라고 단언했고(제43호, 1924년 1월), 『별건곤』(別乾坤)도 “비행기도 조선

인의 손에서 맨 처음 발명되었다.”며 조선인의 자랑거리인 창조미를 예증한다고 역설했다(제6호, 1927년 4월). 이러한 강조는 항공기란 첨단 무기를 발명·운용 중인 세계인의 대열에서 뒤처졌다는 열패감을 상쇄할 뿐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주었음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1922년 안창남의 여의도 상공 비행 전후 조선에서는 항공열이 고조되었다. 다만 식민지 시대의 여러 논자들은 자료의 부족을 인지하고 있었고, 비거의 역사적 실체성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과학사학자 박성래는 “우리의 이런 비행 역사 속에 정평구와 윤달규 등의 자리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박성래, 『인물 과학사1: 한국의 과학자들』).

그러나 비거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활발히 재조명되고 있다. 박성래조차 비거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조선인들이 “정말로 지금의 비행기에 해당할 만한 새 발명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정평구와 윤달규 등의 재능이 당시 어떤 신기한 기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창조 정신을 드러내 줄 것만은 틀림없지 않을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어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군사관학교가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비차 연구팀’과 협업하여 만들어낸 따오기 모양의 비거 모형은, 비거를 역사적 실체로 만들려는 의지가 상상력과 결합한 산물이다. 비거 모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신문』은 주간 명의를 칼럼에서 비거 발명가들을 ‘충무공 못지않은 위대성’을 가진 ‘무명의 애국용사’이자 ‘위대한 과학자’라고 추앙했으며, 사용 방식조차 불분명한 비거를 ‘당시로는 혁명적 전략무기’라고 대담하게 규정했다. 이 상상력은 “만약 당시 지도층 세력들이 거북선과 함께 비차를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면…



▲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에 2000년 12월부터 전시되어 있는 비차 모형



▲ 『공사신문』 제251호(2001년 1월 30일자) 칼럼 「거북선과 비차」에 실린 삽화. 이순신과 거북선 뒤로 하늘을 나는 비거의 상상도가 보인다.

적어도 이후의 민족 수난사는 더 이상 없었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로 귀결되었다(『공사신문』 제251호, 2001년 1월 30일).

독일 지식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자기 이념적 지향을 투영해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 남은 행간을 매우면서 본래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유해 왔다. 이처럼 불완전한 기록을 창조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는, 기록 자체보다도 그 기록을 특정 방식으로 읽고 싶어 하는 후대인의 욕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곤 한다. 공군사관학교 소재의 공군박물관은 2000년 12월 이래 비거 모형을 전시해 오고 있다. 비거 복원을 담당했던 박물관장도 “당시의 유물이나 설계도와 같은 분명한 증거가 없어 역사적 정설로 인정 받지 못한다.”고 발언해, 비거의 실체성을 뒷받침할 근거의 부재를 자인했다. 그러면서도 박물관장은 비거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300여 년이나 앞서 비행체를 제작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공사신문』 제250호, 2000년 12월 20일). 어떤 논변에 대한 증거(證據)가 부재하다는 자각이 있는데도 그 논변의 입증(立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성립했을까? 주장의 이면에 강한 신념이나 문제의식이 수반하기 때문이었다. “비차 전시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이 선조들의 앞선 항공 의식을 직접 눈으로 느끼고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욕망에 대한 박물관장의 솔직한 고백이 그 신념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정평구를 임진전쟁의 영웅으로 그린 동화책이나, 비거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내려고 시도한 과학 서적이 이후에 출간됐다는 사실은 『청춘』의 용감한 주장도, 배후의 욕망도 역사적 과거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AF



공군의
철학과
사상

『코메트』가 전하는 말 : 연재를 마치며

『코메트』를 중심으로 초기 공군의 철학과 사상을 살펴보는 글이 이번 호로 마지막이다. 『코메트』의 존재 가치와 거기에 실린 내용들에 대하여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아닌 정당하고 합당한 평가와 해석이 유능한 인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코메트』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암울한 시대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아동문학가 윤태영(尹泰榮) 씨는 「고우(古友) 이상(李箱)의 풍모」(『코메트』 제14호, 1955)에서 “다만 전부터 벽에 걸려 있는 노란빛이 넘치는 그림인 주인 이상(본명 김해경)의 자화상”으로 1930년대 제비 다방의 쓸쓸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해방이 되고 이어지는 분단과 전쟁은 민족에게는 참담한 시련을 겪게 했다. 이 시기의 분위기는 구상(具常) 시인의 「하꼬방[板子幕]」이라는 시, “유리딱지에 애새끼들/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코메트』 제3호, 1953년)라든가 박목월(朴木月)의 시, 「층층계」의 구절 “나는 날마다/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이 짙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셋까만 밤유릿창에/수척한 얼굴을 만나다./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어슬픈 ‘아버지’다.”에서 잘 드러난다.(『코메트』 제22호, 1956년)

이러한 암울했던 시기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



▲ 1953년 4월 출격 준비하는 강릉기지

는 자각 역시 넘쳐난다. 「세계에 호소할 한국의 저력」의 제하에 「무언중 일치의 양상, 「문화적 재인식, 「불굴의 투혼, 「자유를 지향하는 정열, 「저력과 자조, 「자율적인 정혼」(『코메트』 제2호, 1953년)에서는 필자들이 우리 민족이 잠재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코메트』는 공군과 군 안팎을 조명하며 공군의 개척과정과 발전과정을 기록하는 군기관지의 기준을 뛰어넘어 민족 생사의 기로에서 싸워나가는 국민 전체의 모습과 그 에

너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코메트』는 결국 ‘자유의 목마름’에 대한 기록이고 ‘자유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며, ‘자유를 위한 투쟁’의 기록이었으며 ‘자유의 추동에 의한 민족 에너지의 분출’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그러나 60여 년 전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천봉(夏天峯)은 「민주국가의 군대」(『코메트』 제14호, 1955년)에서 우리 국군의 역사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방의 국민 대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갖다 주어야 할 우리의 동포며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바로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우리 조국의 영토라는 사실입니다. (중략) 우리 국군의 가장 큰 사명의 하나는 이북에 남아 있는 수백만 우리 동포를 공산당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업을 무난히 완수하려면 우리들의 군대가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환영받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후방의 안전을 유지하며 국민 전체의 절대적인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의 군대는 국민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코메트』의 교훈과 경종은 이러한 역사적 과제들을 풀기 위한 지혜와 공군의 영공 수호의 힘을 요청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체성을 확장하고 더욱 발전된 국가를 지향할 신념을 묻고 있다. 또한 『코메트』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군인의 조건을, 그리고 인간의 조건을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 위. 1955년 F-86F로 무장된 수원 공군기지
아래. 1956년 국군의 날, 공군 에어쇼

있을 만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준비에 빈틈이 없을 때 『코메트』의 기록과 기억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이 높은 이상을 가질 때 민족의 이상이 실현된다. 군인이 건전할 때 민족의 장래가 건전하다. 이 이상과 건전이 어디서 오겠는가. 배부른 밥에서, 취하는 술에서 그렇지 않으면 돈에서 오겠는가. 계급장에서 오겠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독자 자신이 생각할 해답이다.”(엄요섭(嚴堯燮), 「군인과 종교」, 『코메트』 제23호, 1956년) AF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공군의 철학과 사상>은 연재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군 창군 70주년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9

예선

2019년 4월 6일 (토)
~ 6월 22일 (토)

본선

2019년 9월 7일 (토)



Space Challenge 2019 주요 변경사항

지역 예선 통합

대상 지역	변경 시행부대(지역)
경남 중서부	5비(김해)
대전/세종	17비(청주)
계룡/공주/금산/논산/부여	20비(서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설

- 개설명칭 :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한글)
-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질의응답(1:1 방식), 행사안내(일괄 메시지 전송)
- 친구 추가 방법 : 플러스 친구에서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검색

모바일 접수체계 시행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 참가접수, 참가증 확인, 공지사항 확인 등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를 검색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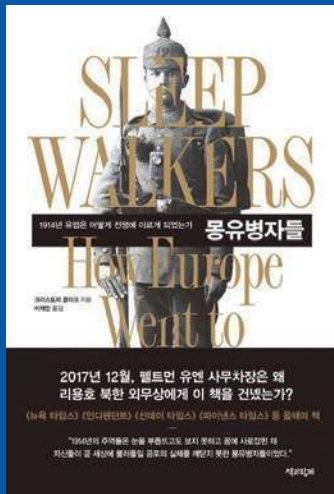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역사] 전쟁은 어떻게 유럽을 찾아왔을까?

『몽유병자들』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7월 위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유엔 사무차장 제프리 펠트먼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건넸던 책이기도 하다. 그 당시 유럽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은 자국을 최우선하는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자신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결코 전망하지 못했다. 스스로의 꿈에 사로잡힌 채 자신들이 곧 세상에 불러들일 공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몽유병자’들이었던 것이다.

이 책은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반목하다가 전쟁에 불을 붙인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라예보 암살사건 전야까지 두 나라의 상호작용을 따라간다. 2부에서는 서사를 중단하고 4개의 장에 걸쳐 ‘유럽은 어떻게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양극화되었는가?’, ‘유럽 국가들은 외교정책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등 네 가지 질문을 던진다. 3부에서는 사라예보 암살로 시작해 핵심적 결정 중심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위기 고조를 위한 계산과 오해, 결정을 조명하는 등 7월 위기 자체에 관한 서사를 제공한다.

몽유병자들 / 크리스토퍼 클라크 / 책과함께 / 2019.01.28 / 1,016페이지 / 48,000원

일반장병 추천도서



[소설] 숨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역사는 다시 쓰인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하고자 했던 광해군(세자)과 이순신. 두 사람은 내부의 적에 의해 희생된 비운의 군주와 장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역사로만 접했던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광해와 이순신』은 동아시아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임진왜란 사건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조선을 구한 주인공인 광해와 이순신,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수많은 역사서와 소설에서 다루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에 주목했다.

『광해와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주 무대로 당시 조선의 현실과 정치상황을 낱알이 파헤친 역사책이기도 하다. 장르는 소설이지만 철저히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조선을 구하고 쓰러진 광해와 이순신이라는 두 주인공의 삶을 통해 우리의 슬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광해와 이순신 / 정호영 / 하다 / 2019.02.11 / 417페이지 / 15,800원



18비, 제설작전 실시

제18전투비행단은 이른 새벽부터 눈이 내린 2월 14일(목), 폭설에도 24시간 빈틈 없는 영공방위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SE-88을 동원한 제설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군사외교활동 전개

참모총장은 2월 6일(수)~13일(수) 필리핀과 UAE를 방문하여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참모총장은 로저노 브리게즈 필리핀 공군사령관과 알 아라위 UAE 공군 사령관 등 양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방현안 및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UAE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열사의 땅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격오지 장병 격려

참모총장은 2월 2일(토) 설 명절을 맞아 최동단 관제대대를 방문하여 격오지에서 영공 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1전비,
군고구마 나눔 행사**

제1전투비행단은 2월 8일(금) 정비 일선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정비전대 장병들을 위해 군고구마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8전비,
지휘관·참모 정비현장 체험**

제8전투비행단은 2월 11일(월)~13일(수) 지휘관과 참모의 정비절차 이해를 도모하고 정비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휘관·참모 정비현장체험을 실시했습니다.



**11전비,
韓·美 연합/합동 대테러 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2월 12일(화) 다양한 상황에서 실전적인 대테러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美 육군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6전비,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

제16전투비행단은 2월 1일(금)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진료·면회·자기계발 및 개인업무 활성화 여건 보장을 위해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실시했습니다.



**19전비,
구제역 방역 지원**

제19전투비행단은 1월 31일(목)~2월 6일(수)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비해 연휴 기간 동안 대민 방역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20전비,
123대대 4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제20전투비행단은 2월 11일(월) 123대대 4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AF

담벼락

그 일흔다섯 번째 이야기

「밥」

제17전투비행단 헌병대
일병 박성민



쓰디 쓴 상추와 우리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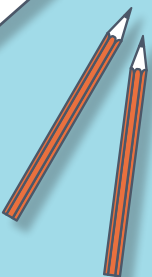
훈련병 때였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그 해 여름, 진주의 태양 아래 오전 학과를 마친 훈련병들에게 꿀맛 같은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곁들임 반찬은 상추 무침. 그런데 상추 무침의 맛을 본 나와 동기들은,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유난히도 썼던 그 날의 상추는, 시간이 흘러서야 내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물수록 농작물은 쓴 맛을 낸다고 한다.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 해 여름은 비가 내리지 않아 농촌 곳곳마다 기우제를 지낼 정도였으니, 그 해의 하늘은 농민들에게 야속하리만큼 비를 뿌려주지 않았다. 취식이라는 일과는 군인에게 다분히 일상적이라, 그 자체로부터 느끼는 감정은 매우 일차원적이다. 사실 '감정'이라기보다는, '맛있다, 맛없다'의 '감각' 정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지키는 이 땅과 바다의 식재료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필요한지 알게 된다면 그 '감각'은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비행단에 전입 와서는 책을 읽다가 '감선(減膳)'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감선이란 그 해 나라에 흉작이 들거나 농작물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을 때, 왕이 수라상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다. 역사 속에선 임금의 애민정신이나 겸손함 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 가까이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식판 위 반찬의 가짓수를 줄일 순 없어도, 적어도 '감선'의 정신은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3월은 우리 땅에 다시 한 번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다. 모내기 위해 누군가는 해가 지는지도 모른 채 허리를 굽혀야 할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는 쫓던 그 해가 다시 떠오르는 지도 모른 채 그물과 통발을 걸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간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무 뒤엔 많은 이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상추의 맛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맛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쓰디 쓴 상추의 맛은 공통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대한민국 군인의 삼시세끼를 위해, 땀 흘리는 우리 농민과 어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분석훈련과

병장 이용범**어머니의 아침밥**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마다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밥 먹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들 때문에 주말 아침에도 늦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아침 밥을 먹으라며 재촉하는 어머니에게 ‘급한데 무슨 아침밥이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가족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야채, 생선, 고기를 손질한 후 반찬을 하고 가족들의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 온 어머니의 모습이었기에 그게 당연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외식을 잘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요리 실력이 웬만한 식당에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와 동생은 우리 집이 외식을 하러 나가는 날이면 항상 들렀습니다. 훈련소에 가기 전 그 날도, 저는 집에서 밥을 먹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어머니의 말에 ‘맨날 집에서 밥 먹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서 먹자’고 말했고 그 결과 우리 가족은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식을 한다고 좋아했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선 그 날의 외식을 후회하며 지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각 중대별로 돌아가며 급양도우미를 합니다. 매일 최소 1,50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훈련소 급양병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급양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꿀 같은 휴식시간을 한 시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실 훈련병들은 급양도우미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 한 주에 한 시간씩 준비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몇 년 동안 그 일을 묵묵히 해오셨습니다. 어머니도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 가족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어머니에게 때론 화도 내고 피곤하다며 짜증내기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투정부리지 않고 이번 휴가 때 제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제18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상병 이정섭**“정량입니다!”**

군대에 와서 새롭게 배운 말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배식을 받을 때마다 지겹게 들었던 ‘정량입니다!’라는 말이다. 맛있는 반찬을 조금이나마 더 받으려고 할 때 배식을 하는 전우님들은 ‘정량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차갑게 외면하곤 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항상 남는 것 같은데, 정량배식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유난히 힘든 훈련을 마치고 점심에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그날은 꽤나 괜찮은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고 모두 기대를 한가득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배식을 받으려 하니, 남은 반찬이 없다는 이야길 들었다. 결국 밥과 김치와 국밖에 받지 못한 우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때 비로소 반찬이 없어서 받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과 분노는 조금 받았다고 투정부릴 때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인원의 식사를 책임지는 전우님들의 공평무사함은 조금은 매정해 보일지라도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급양 도우미의 순서가 돌아서 우리 소대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배



식 업무를 맡은 나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량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메뉴는 오리 불고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기가 많은 메뉴인만큼, 예상대로 처음부터 많은 전우들이 더 달라고 요구했다. 저번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며 ‘정량입니다.’를 외치던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요구에 어느새 조금씩 많은 양을 주고 있었다. 남은 양은 충분히 보였고 ‘배식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더 쥐도 되겠지’하고 마음을 놓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던 시간이 얼마 남기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훈련을 뒤늦게 끝나치고 온 소대들이 몰려든 것이다. 흔히 ‘도전소대’라고 불리던 전우님들이 속해 있는 소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이제 남아있는 오리불고기의 양은 얼마 없는데, 그들에게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하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반찬통을 박박 긁어가며 조금씩 배식을 이어갔는데, 쥐꼬리만큼 떨어지는 오리불고기를 보는 전우님들의 표정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과 달리 더 달라고 떼쓰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측은한 표정으로 보며 지나갔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표정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 경험으로 다시 한 번 안일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고, 일을 항상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었다. AF

책 읽는 공군

시대의 소음

- 한 시대 속에서의 예술의 역할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내가 이 책을 읽기로 선택한 것은 그저 책의 제목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소음'이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라는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허구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전개되는 소설과 달리, 실존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므로 그 인물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상황, 시대적 경향 등의 여러 요소들을 눈여겨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소련의 작곡가로서 아주 높게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곡들이 '대중을 선포하고 미국의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곡'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후 그는 자신이 어느 순간이라도 사라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매일 밤을 지낸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지만, "살게 됨으로써 죽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신념, 지향점을 다양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 그들의 정신이 낳은 작품들은 수많은 청중이 해석한다. 하나의 작품은 수많은 해석을 자아내고, 그것은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나 한 개인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에 대해 생각을 갖게끔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무수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을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조각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예술은 과연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조작된 예술은 과연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술은 모두의 것이며 누구의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시대의 것이며 어느 시대의 것은 아니다. 예술은 창조자와 그것을 향유하는 자들의 것이다.

글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
일병 장재영



또한 책에서는 '예술이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라고 언급한다. 예술에 대한 마지막 표현에 특히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한 시대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시대를 정확히 정의내릴 수는 없다. 시대의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들 사이에서 예술은 그 시대의 몇몇 논쟁거리를 건져 올린다. 그 논쟁거리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 스스로의 통찰력이자 그 자신의 통찰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이다. 누군가는 예술은 단지 현실과 동떨어진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허나 유사 이래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해 왔고 비록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습은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 인간이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우수한 이유는 단순히 그 자체의 능력의 우월함 때문은 아닐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그 이유일 것이다. 더 발전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그 모습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있어 예술은 가장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드미트리가 꿈꿔온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시대의 소음

줄리언 반스 지음
다산책방 펴냄

매혹하는 식물의 뇌

-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식물의 진실

식물에 대해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물을 '병어리' 내지는 '지구의 불박이 가구'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식물은 쓸모 있고 매력적인 생물이기는 하지만, 고작해야 지구상에 건설된 생명 공화국의 2등 시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인류가 식물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물이 보기보다 그리 수동적인 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높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실 알고 보면, 식물은 자신과 인간이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당당히 주인공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식물은 지구의 모든 육상환경을 지배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biomass)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모두 합쳐 봐야,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이는 장소에 착지하게 해줄 것이다. 독자들 중에는 식물이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생명의 게임에서 인간을 무색하게 할 만큼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인간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찍이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식물을 조직화된 존재의 범주로 승격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다.” 찰스 다윈 이후로 가장 열정적으로 식물을 옹호하고 있는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저자는 비교적 신생학문으로 아직도 논란에 휩싸여 있는 식물지능학 분야를 이끌고 있다. 식물지능학이라고 하면 많은 식물학자들이 ‘극단’이나 ‘과장’이라는 단어를 떠

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능을 간단히 ‘삶이 제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식물이 지능을 가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지능, 학습, 기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애써 동물의 전유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책은 ‘동물과 식물이 지능을 공유한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이 책은 과학소설이 아니라,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지닌 과학저술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강력한 상상력의 결과물로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보다 풍요롭고 경이로운 세상으로 안내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자유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AF**



클
제18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일병 박준기



매혹하는 식물의 뇌
스테파노 만쿠소,
알레산드라 비올라 지음
행성B이오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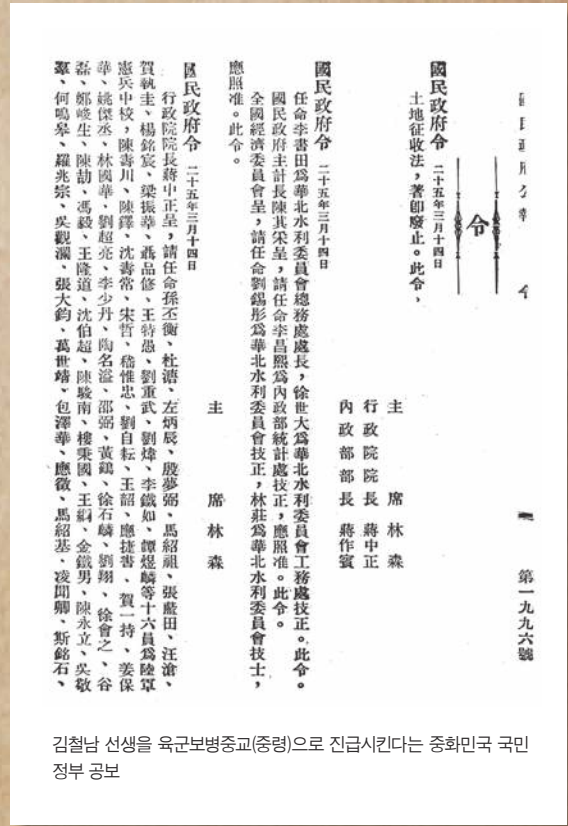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 김철남과 장제스 전용기 정비사 손기중, 이 둘의 인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적 뿌리는 어디일까? 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회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군력 건설에 주목했다. 대한 독립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공군을 해방된 조국에서 자주국방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임시정부는 열악한 재정 등으로 독립군 공군 창설에는 실패했지만 공군력의 중요성을 알기에 공군설계위원회를 꾸리게 된 것이다. 공군설계위원회 부주임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아버지인 최용덕 장군이 맡았다. 공군설계위원은 윤기섭, 김철남, 이영무, 김진일, 권기옥, 이연호, 권일중 선생이 임명

되었다. 오늘은 이들 중 김철남 선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사랑방이 김정렬 장군의 자택이었다면 김철남 선생의 자택은 대한 독립 공군 창설의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김철남 선생을 빼고서 항일항공독립운동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다. 김철남 선생은 황해도 신천 사람이다. 1915년 상하이로 망명한 후 중국육군무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국민당군 장교양성의 요람인 황포군관학교 제3교도단 부단장으로 활동했으며 장제스 총통의 북벌 당시 북벌군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항공독립운동의 사랑방

앞서 김철남 선생의 자택은 대한독립 공군 창설의 사랑방이라고 했다. 어쩌면 사랑방이라는 단어보다는 ‘중심’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김철남 선생의 자택은 항공독립운동의 사랑방이자 중심이었기에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덕분에 김철남 선생과 선생의 자택은 독립운동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1928년 5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 여사가 일경에 체포되었던 장소도 김철남 선생의 자택이었다. 선생의 자택을 감시하던 일본의 밀정 때문이었다. 김철남 선생은 일본 밀정이 집에 있으니 오지 말라는 부인의 연락을 받아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일본 경찰이 전봉남이라는 청년을 심문한 기록에도 등장한다. 심문조서에 따르면 “전봉남은 삼천리잡지의 기사를 읽고 비행사가 되기 위해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이범석의 권유로 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훈련반에 들어갔지만 ‘불은 조선인(일본 입장에서)’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탈출을 꿈꾸었으나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 김철남(공군설계위원) 선생의 집에서 하숙을 하다 감시의 눈길을 피해 자진하여 불은단체를 탈출하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김덕원, 김용학, 정태운(정필성), 최도능, 김종철 등 조선 청년들의 중국 중앙항공학교 입교 시도 사건에도 김철남 선생의 이름이 등장한다. 하지만 정작 후대인 우리들에게 김철남 선생의 존함은 너무나 낯설기만 하다.



김철남 선생을 육군보병중교(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중화민국 국민정부 공보



중국육군군관학교 8기 외국어교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김철남 선생

독립운동을 위해 우익과 좌익이라는 양 날개를 품다.

김철남 선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익과 좌익을 가리지 않았다. 선생의 입장에서는 우익과 좌익을 떠나 모두 조선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상하이와 난징에 오는 독립지사들과 애국청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끔 내주었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받아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1930년대에 공산당 혐의를 받았고 국민당 밀정들의 눈을 피해 한동안 상하이에 숨어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 있는 국민당군 동료들과 선후배 장교들이 김철남 선생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덕분에 선생은 공산주의자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비록 군복은 벗어야 했지만 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일본어교관으로서 수많은 국민당군 장교들을 교육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후 국민당군에 복귀한 선생은 국민당군 군사위원회 공습방어총감부 소극방어처장, 방공총감부 과장 등으로 일본군의 공습에 맞서기 위한 방공체계 구축에 힘을 보탰다. 일본군의 폭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김철남 선생은 태연함을 잃지 않았고 전화로 방어와 반격작전을 지휘하였다는 일화에서 볼 수 있듯 이름 그대로 철의 사나이였다. 하지만 철의 사나이는 해방된 조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우익과 좌익을 따지지 않았던 그이기에 그 상처는 너무나 컸을 것이다. 선생은 1952년 57세를 일기로 베이징에서 눈을 감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장제스 총통 전용기 메이링호

장제스 총통의 전용기 정비사 손기종 선생

장제스 총통의 전용기 중 C-47 수송기를 개조한 메이링호(美齡號)는 장제스 총통의 부인이었던 쑹 메이링¹⁾ 여사의 이름을 붙인 전용기다. 그만큼 장 총통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전용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의 전용기이다. 메이링호 정비사 중 2명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손기종과 김영재 선생²⁾이 그 주인공. 현재도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은 엄격한 신원조사를 걸쳐 선발이 된다.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치르던 당시 장제스 총통 입장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정비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더욱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 아닐까? 손기종 선생은 장제스 총통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1935년 4월에는 장 총통이 직접 손기종 선생의 봉급을 40원 인상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 당시 40원의 가치는 엄청났다. 당시 비행기 정비사의 일반적인 월급은 20원 정도였다. 손기종 선생의 봉급인상액이 당시 정비사 월급의 2배였던 셈이다. 손기종 선생은 해방된 조국으로 떠나지 않았다. 장제스 총통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 가지도 않았다. 공산화된 중국에 그대로 남은 것이다. 얼핏 보면 이해가 힘들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손기종 선생의 선택이 이해가 갔다. 손기종 선생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김철남 선생의 사위였던 것이다. 여담으로 김철남 선생은 자신의 딸들을 항공독립지사들과 맺어주었다. 손기종 선생뿐 아니라 중일전쟁 당시 중국공군 중앙기계창장으로 활약했던 장성철 선생³⁾도 김철남 선생의 사위였다. 김철남 선생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AF

- 1) 장제스 전 중화민국 초대 총통의 부인으로, 둘째 언니인 쑹아이링은 신해혁명의 주역인 쑨원과 결혼했다.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간 뒤 미국의 장·관·재계에 '타이완 커넥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1975년 장 총통이 타계한 뒤 뉴욕으로 옮겨가 칩거했으며 2003년 10월 24일 타계했다. 1966년에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았다.
- 2) 중국명 왕영재. 일본항공학교를 졸업 후 상하이로 망명했다. 김원봉 선생의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 졸업 후 중국공군에 입대. 장제스 총통 전용기 기계사(정비사)로 근무했다. 최종 계급은 중국군 상위. 김구 선생의 소개로 결혼을 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에 참가했다. 귀국 후 대한민국 공군 대령으로 퇴역했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으며 오성장군으로 유명한 김홍일 장군이 그의 숙부다.
- 3) 1919년 상해망명 후 황포군관학교 제3기 보병과를 졸업했다. 이후 광동항공학교와 소련 모스크바 비행학교를 거쳤다. 소련 유학 후 중앙육군군관학교 항공반 기계원, 중앙항공학교 낙양분교 기계교관, 중국공군 중앙기계창장 등을 역임했다. 최종계급은 중국군 소교(소령). 한국광복군과 협력해 전단살포 등의 선무공적을 진행했다. 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손기중 정비사



메이링호에서 내리는 장제스 총통과 쑨메이링 여사



손기중 선생의 봉급을 인상하라는 장제스 총통의 지시 사진 출처: 대만 국사관

김철남 선생 약력

- 가명 김병두
- 출생 1895년 9월 12일(황해도 신천)
- 사망 1952년 10월 7일(중국 베이징)
- 1915년 5월 서울 경신학교 졸업 후 중국 상하이 망명
- 1923년 중국육군무관학교 입학/졸업 후 중국군 장교
- 황포군관학교 제3교도단 부단장 / 북벌전쟁시기 북벌군 참가
- 1930~34년 중앙육군군관학교(황포군관학교) 일본어교관

※ 중일전쟁 발발 후

- 국민당 군사위원회 방공총감부 과장(사천성 기강, 감숙성 란주, 사천성 성도, 강진비행장의 방공시설 구축)
- 1936년 3월 중국육군보병중교(중령) 진급
- 1942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황해도 의원
- 1943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
- 1944년 2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장
- 199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손기중 선생 약력

- 1911년 황해도 신의주에서 출생
- 1919년 부친과 함께 상하이 이주
- 1928년 상해항공공창(항공조병창)에서 항공기술 습득
- 1931~1937년 장제스 총통 전용기 정비사 겸 부국장
-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중국본토 물자수송 참가

※ 중화민국 선위훈장 수훈

- 1950~1952년 상해민항 항공기관사 (비행기 탑승 정비사)
- 1952~1957년 중경민항 항공기관사
- 1957~1965년 운남민항 항공지면설계공정사 (지상정비사)
-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쿤밍에서 사망



우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PACE

우주 개발 - 2편

대한민국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주 개발

2018년 후반기에는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사체인 누리호와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 그리고 차세대 소형위성의 발사가 연이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약하는 인공위성 개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 개발을 대표하는 인공위성 개발은 기초이면서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통신위성인 무궁화 위성,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 등을 제작하여 우주로 쏘아 올렸다.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은 개발 당시 국내에 보유한 기술이 없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위성 설계·조립·시험 등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주궤도에는 광학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탑재한 아리랑 2, 3, 3A, 5호가 운용 중이며 초정밀광학 기술을 탑재한 6호와 7호가 개발 중이다. 이에 더해 민간기업, 대학교에서도 위성을 만드는 등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 출처 : 항공우주연구원

최초의 국산 액체로켓과 우주발사체

2002년 11월 28일, 서해안에 있는 작은 섬에서 우리나라 최초 액체추진 과학로켓 KSR-III가 발사되었다. 이 로켓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3,000개 이상의 부품을 국내에서 만든 토종로켓으로 우주발사체의 핵심인 액체추진제 기술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 1월 30일에는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발사를 통해 소형위성을 지구저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하며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자립의 디딤돌을 놓았다. 나로호는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확보하고,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산 액체추진 과학로켓 KSR-III, 출처 : 항공우주연구원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I, 출처 :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우주 개발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GPS, 초고속 인터넷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지상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은 우주 개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우주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빅데이터로 구축된 다량의 위성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그 정보를 사고 팔거나, 초대형 로켓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소형위성 + Big Data + AI의 삼합

일반 위성보다 크기가 매우 작은 초소형위성은 현대 우주개발의 떠오르는 종목이다. 기존 위성보다 크기가 작아 개발·발사비용이 획기적으로 적어서 보다 많은 위성을 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막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초소형위성 기업인 'Planet Labs'사는 200여기의 초소형위성으로부터 매일 7TB 용량의 위성영상을 전송받고 있다. 이렇게 위성정보가 '빅데이터'화 되면 이를 기계적으로 학습한 AI가 정보를 판독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림처럼 영상에서 항공기, 차량 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동경로, 교통량 등 2차, 3차적인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기존 사진만 찍던 인공위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산업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성사진 판독, 출처 : Orbital Insight

초대형 우주발사체와 우주여행

지난 2018년 2월 6일 스페이스 X사의 '팰컨 해비(Falcon heavy) 9'이 발사되었다. 초대형 발사체인데 그 추진력은 보잉항공기 18대를 합친 힘에 해당하며 로켓은 지상에 다시 착륙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이 로켓의 발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개발하였다는 점,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우주여행시대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되며, 그만큼 인간이 우주로 가기 쉬워졌음을 뜻한다. 이에 인간이 꿈에 그리던 '우주여행'도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11분 우주여행할 수 있는 티켓(가격은 약 2억 원)을 올해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우주호텔로 여행이 가능해 질 것인데 1박에 8억 원인 이 호텔은 5성급 호텔서비스와 함께 미세중력 상태에서 하루에 32번 일출·일몰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AF**



우주호텔 오리온 스펀, 출처 : Orion Span



<우주소식> 인트라넷 홈페이지 안내

최신 우주자료를 인트라넷에 소개하고 있사오니 공군 장병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접속방법 : 공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 하단 '전체메뉴 열기' - 우측 하단 '우주소식' 접속

* 인트라넷에서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생활 타이포그래피

정보의 위계와 그룹

포스터, 리플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 글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글자들을 디자인해야 하는 이유는, 각 글자들은 정보의 목적에 따르는 '위계'와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디자인하는 것은 각 글자들을 정보의 목적에 맞게 정돈하는 행위입니다.

통상적으로 작은 글자보다는 큰 글자가, 가는 글자보다는 굵은 글자가 더 큰 무게감을 가지기에 더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강조되어야 할 정보와 덜 강조되어야 하는 정보 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 디자인하는 것을 '위계'라고 합니다.

아래의 이야기를 보면, 글자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 각 정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공군씨는 보안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단편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편영화에 들어갈 크레딧을 디자인하면서 김공군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공군씨는 '감독'이라는 글자와 '김공군'이라는 글자의 중요도가 같다고 생각하고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감독 김공군

그런데 막상 적어놓고 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감독'을 강조하기 위해 '김공군'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감독 김공군

그러자 김공군씨는 '감독'이라는 글자는 강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감독'의 글자를 얇게 바꾼 뒤 '김공군'의 글자 크기는 원래대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감독 김공군

한결 나아졌다고 생각한 김공군씨는 '김공군'을 보다 강조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감독'의 굵기는 원래대로 돌려놓은 다음 크기를 줄여보았습니다.

감독 김공군

김공군씨는 이제 만족스러워졌지만 '감독'의 글자 무게감이 더 줄어들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글자 크기를 줄일 수는 없어서 '감독'의 글자를 더 얇게 해보았습니다.

감독 김공군

김공군씨는 이제 충분히 편안해보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글자의 크고 작음, 글자의 굵고 얇음은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정보의 위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며 강조되어야 하는가'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은 함께 묶여 있어야하는 정보들끼리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일시

2019년 3월 10일

장소

계룡대 대강당

주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위의 글자들을 보면 '일시', '장소', '주최',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정보들이 모두 같은 간격에 같은 굵기와 크기로 되어 있다보니 정보들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령, '주최'라는 글자가 '계룡대 대강당'과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 어디에 속하는 정보 인지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시

2019년 3월 10일

장소

계룡대 대강당

주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반면 위의 글자들을 보면, 각 정보들끼리 잘 그룹화되어 있어 정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일시'와 같은 제목정보가 '2019년 3월 10일'과 같은 설명정보보다 글자의 굵기가 굵어서 정보 간의 위계 정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시1

화합과 추억을 위한 자리
병사 체육대회

2019년 3월 5일


예시2

2019년 3월 5일
병사 체육대회

화합과 추억을 위한 자리

예시1을 보면 '화합과 추억을 위한 자리'가 제목과 함께 붙어 있기에 행사명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쉽게 인지됩니다. 또한 날짜정보의 글자 크기가 '추억을 위한 자리'와 같지만 독립된 정보로 배치되었기에, 제목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추억을 위한 자리'보다는 중요한 정보로 인지됩니다. 하지만 그림2의 경우에는 날짜 정보와 행사명이 함께 묶여있어 어색하고, 부연설명이 불필요하게 독립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의 위계와 그룹을 형성해야하는 이유는, 보는 이에게 각 정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각 정보의 관계를 해석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정보의 위계와 그룹은 글자가 들어간 것을 작업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개념입니다. 어느 정보가 더 중요하며, 어느 정보들끼리 묶여 있어야하는지를 잘 고민해본다면 글자들을 배치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심호규 교수
(보라메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



당신이 대형재난 현장에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먼저 119에 신고하고, 부상자를 구하고, 주변 사람을 안전지역으로 대피 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후 대피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지 배워본 적이 있는가? 전쟁, 테러, 교통사고, 화재 등의 인적재난과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은 재난 초기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ASR)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난을 경험한 직후 충격 단계에 있는 피해자, 주변인 그리고 구호에 나선 사람 모두의 심리안정을 위해서 초기 심리안정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라고 부른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으로 인해 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심리적 안정, 고통 경감 그리고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회복을 도와준다. 이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같은 증상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악화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활동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재난이나 외상 사건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인명 구조를 우선한다. 둘째, 현장에서 트라우마로 혼란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셋째, 피해자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이 커서 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 관리와 치료, 도움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넷째,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하는 동안 자주 피해자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다섯째,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함께 그들이 가지는 큰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생존자들이 가족과 친지 및 지역사회 내 지지 체계와 연락하도록 도와주고, 재난복구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해 주는 일이 포함하여, 재난 발생 직후의 심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개별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원을 포함한 심리적 개입을 한다.



몸을 다치면 응급처치를 하듯이 재난을 경험한 사람의 심리에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재난 시 심리안정을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



재난 상황 시 제1원칙이자 목표는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저해하는 행동 모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혼란스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강요하며 취조하듯이 상황에 대해 묻기
-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 피해자를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비난, 폄하하는 언행
-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을 과신하며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
- 도움을 준 대가 혹은 조건으로 다른 보상을 요구하기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받으라고 강요하기
- 피해자의 위급 상태를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기
- 그 외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들



심리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주변의 동료, 지휘관, 관리자 등 현장을 잘 아는 비전문가들 모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심리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 시 개입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는 육·해·공군의 장병과 군무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및 상담관련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외상 및 재난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과 개입을 강조하는 현장 중심 교육인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통해 재난심리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심 있는 장병들은 '2019년 심리적 응급처치 과정 안내'를 참고하여 교육에 지원해보자. **AF**

2019년 심리적 응급처치(PFA) 과정 안내

• 교육 계획

차수	교육기간
19-1차	4월 24일(수) ~ 4월 26일(금)
19-2차	6월 12일(수) ~ 6월 14일(금)
19-3차	8월 7일(수) ~ 8월 9일(금)
19-4차	10월 30일(수) ~ 11월 1일(금)

- **교육 장소**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충북 청주시)
- **대상 인원** 차수별 30여 명(軍 내·외 심리상담 및 심리안정지원 관계관)
- **주요 내용** 심리적 응급처치 평가 및 기법, 사례토의 등
 - 외상 및 심리적 장애의 개념, 심리적 응급처치 평가 및 기법
 - 공군 심리적 응급처치 적용사례 및 개선·발전방향 모색 등

• **신 청** 교육기간 3주 전(교육기간 한 달 전 문서 하달 예정)

*문의처 :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군)921-4331~3, (일반)043-290-4331~3



첫 독자의 편집후기

발 300mm, '걷기 교주' 하정우의 '걷는 철학' '걷는 사람, 하정우'

전 국민 독서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 CAMO 독서신문

글 독서신문 (1970년 창간, 독서문화 활성화 신문매체)

사진제공 문학동네, 수오서재, 마음의숲

첫 독자의 편집후기



『걷는 사람, 하정우』

하정우 지음
문학동네 펴냄 | 296쪽 | 15,500원

발 300mm, '걷기 교주' 하정우의 '걷는 철학' 『걷는 사람, 하정우』

보통 '배우 하정우' 하면 '명배우'라는 사실 외에도 일반인에 비해 커다란 머리 사이즈를 떠올리곤 한다. 그런데 그의 발이 머리만큼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300mm의 발사이즈 때문에 신발을 사려면 이태원이나 해외에 나가야 한다.

'왕발' 하정우가 광적으로 따르는 취미는 다름이 아닌 '걷기'. 걸음 수를 측정하는 피트니스밴드 '핏빗'(fitbit)을 손목에 차고, 걸음이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인생 최고의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여기며, '걷기'를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교주'의 모습이 우리가 잘 몰랐던 그의 실제 모습이다.



영화 '아가씨'를 찍을 때는 매번 촬영장까지 1만 6천 보를 걸었다는 하정우. 그에게 걸기란 예찬의 대상이다. 걷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과거의 어느 막막한 날에도, 이따금 잠까지 줄여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지금도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며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쥐어 준 것이 무엇이든 내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가 배우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실제 두 다리로 걸어 다닌 길, 그리고 걸으면서 느낀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2010년 영화 '국가대표'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하정우는 2011년 영화 '황해'로 다시 수상 후보에 올랐을 때 2년 연속 수상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정우는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라고 덜컥 선언해



버린다. 어차피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한 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걸, 장내에 수상자로 올려 퍼진 이름은 다름 아닌 ‘하. 정. 우.’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는 그는 결국 16명의 친구와 ‘천릿길’(392km)이 넘는 우리 국토 577km를 걷게 된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으면 보통은 뭐라도 깨달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독자들은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 궁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그 긴 여정의 끝에서 하정우가 느낀 기분은 다름이 아닌 ‘허무함’이었다. 그리고 그 ‘허무한’ 국토대장정 탓에 며칠을 앓듯이 자고 일어난 하정우는 거울 앞에서 과거보다 좀 더 건강해 보이는 자신을 마주한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길 끝에서 허무함을 느낀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은 결국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길 위의 매 순간이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라고 적었다.

하정우는 순전히 ‘걷기 위해’ 하와이를 찾을 정도다. 하와이는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4박 6일이라는 애매한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졌을 때 하정우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하와이 걷기’란다. 그런 그가 하와이에서 10만 보를 목표로 걸었을 때 걷는 시간보다 신경 썼던 것은 바로 ‘쉬는 시간’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많이 걸을 때는 운동화 속의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발바닥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법”이라며 “쉬는 시간에는 지쳤다고 숨만 훌훌 몰아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동화 속과 두 발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다음 오십 분을 준비해야 한다. 지쳤다고 그냥 늘어진 채로 목구멍에 물만 들이부으면 영락없이 탈이 난다”고 말한다.

그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날, 걷다가 체력이 달려서 집으로 당장 돌아가고 싶었던 날, 혹은 인생에서 비슷한 힘겨운 날들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걷기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의 성취감이었다.”고 고백한다. 하정우는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은 미래를 위한 저축 같은 것”이라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괴롭기까지 하지만 훗날 큰 감동과 의미를 선물해주니까”라는 선문답 같은 지혜를 말하기도 한다.

대배우 하정우가 ‘걷기’라는 사소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지만, 이런 사소한 취미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재미다. 하정우와 함께 걸으며 건강과 인생, 그리고 행복까지 챙겨보자. AF

0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헤민 스님 지음
수오서재 펴냄 | 272쪽 | 15,000원

02.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지음
마음의숲 펴냄 | 288쪽 | 13,800원

- 01. 우리는 어쩌면 소란스러운 세상에 마음까지 물들었는지 모른다.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는 ‘동네 스님’ 헤민은 이 책에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고요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법’, ‘사회가 만들어놓은 획일화된 행복과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등 현대인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을 안내한다.
- 02.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고 응원한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너답게 살라고 말한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베게티우스가 말하는 최강 로마군단의 비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글·사진
안광복
(중·고등학교 교사,
철학박사)

베게티우스가 말하는 최강 로마군단의 비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병사들의 손에 적의 피가 묻어있지 않다면”

한니발(Hannibal, B.C.247 ~ B.C.183)은 로마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신출귀몰한 전술과 코끼리 부대의 강력함에 로마군단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병력이 부족하고 보급도 충분치 않은 상황,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로마의 청년 장군 스키피오(Publius Cornelius Scipio, B.C. 236~ B.C. 184)는 장병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실시하며 힘든 노역으로 병사들을 몰아세웠다.

누군가 나서서 지치고 겁에 질린 장병들을 왜 이리 가혹하게 대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스키피오는 결연하게 답한다.

“지금 우리 병사들의 손에는
적의 피가 묻어 있지 않

다. 그러나 참호의 진흙으로 더럽혀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원 후 4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저술가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 Rhenatus, 생물연대 미상)는 군사학 논고(De Re Militari)에서 이 일화를 감동적으로 소개한다. 왜 그럴까? 결국 스키피오의 군단이 한니발을 꺾고 로마를 구해냈기 때문이다. 베게티우스 시대의 로마제국은 이미 수명을 다해 가는 상태였다. 군사학 논고는 패배감에 젖은 당시의 장병들에게 왜 조상들의 로마는 강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베게티우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다. “적들이 우리를 존중하여 타협하려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에 반해서가 아니다. 단지 우리의 군대가 두렵기 때문이다.”

“적들이 무서워하는 군대가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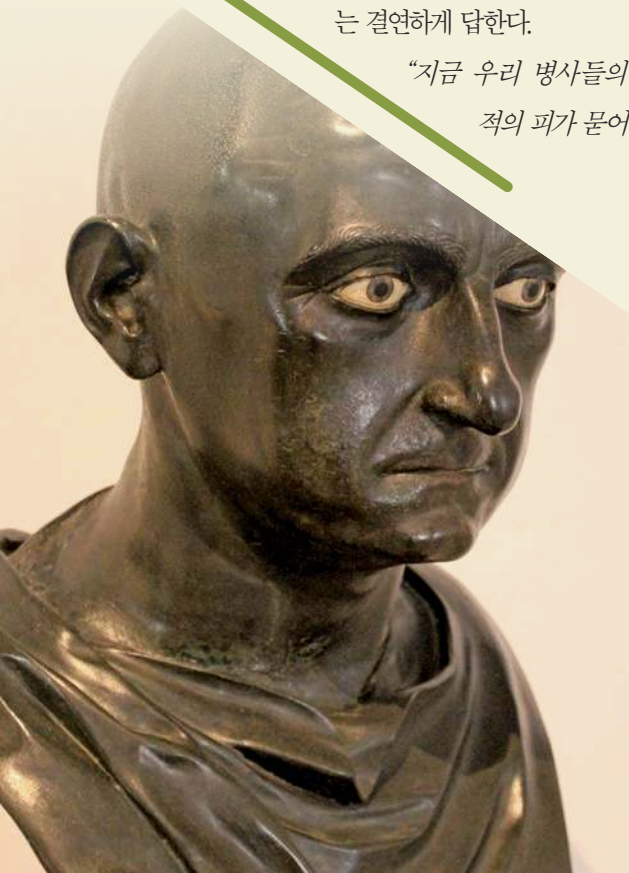
처우가 좋고 복지가 잘 갖춰진 군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훌륭한 군대인 것은 아니다. 군대는 마땅히 적들이 무서워하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존재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

베게티우스는 군대의 강력함은 병사의 수나 군비(軍備)의 규모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전성기의 로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1개 군단 이상을 전장에 내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로마시민으로 이루어진 6천 명 규모의 군단병과, 비슷한 규모인 주방위군 성격으로 현지에 있는 보조군단만으로 로마는 온갖 적들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전쟁에 숙달된 소수의 장병들이 승리를 이끈다. 반면, 경험 없고 기강도 잡히지 않은 군인들은 살육 현장으로 끌려 다니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에서는 군기(軍紀: 군대의 기강)가 병력보다 중요하다. 군기가 흐트러진 군인은 농부와 별 차이가 없다. 기술의 본질은 끊임없는 훈련에 있다는 옛 사람들의 말은 확실히 옳다.”

◀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의 스키피오 흉상
(사진: Miguel Hermoso Cuesta). 스키피오는 카르타고군을 섬멸하고 한니발을 크게 물리친 로마의 명장이다.



15세기에 제본된 ▶
『군사학 논고』, 베게티우스의 저술은 당대보다
후대의 군사학자들에게 인정받았다.

이렇듯 베게티우스는 군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기율이 잡히지 않았다면 많은 병력과 풍부한 무기도 되레 해만 될 뿐이다. 통솔하기 어려워 혼란에 빠지기 쉬울 뿐더러, 보급 등에서 어려움만 키우는 탓이다. 베게티우스가 볼 때, 로마 군단의 힘은 엄정한 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율 잡힌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그는 ‘정신교육’만 강조하지 않는다. 군인정신은 결국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베게티우스는 이렇게 충고한다. “익숙해져 습관으로 굳어지면 모든 일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로마 병사들은 무거운 무기와 군장으로 등이 휠 지경이었어도, 묵묵하게 힘든 행군을 이겨내고 적진 앞에 과감히 진영을 설치하곤 했다. 거듭된 훈련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이 몸에 밴 덕분이다.

강인한 훈련은 전투력뿐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한껏 키워 놓는다. 강도 높은 전투 훈련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군인은 실제 전투를 통해 공을 세울 꿈에 부풀기 마련이다. 이런 병사들이 많은 부대는 사기가 높을 뿐더러 탄 생각에 빠지지도 않는다. 반면, 훈련에 소홀히 하여 전쟁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군단병사들은 싸움에 자신이 없으니 전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 그래서 전투 이외의 다른 일들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불평불만도 높기 마련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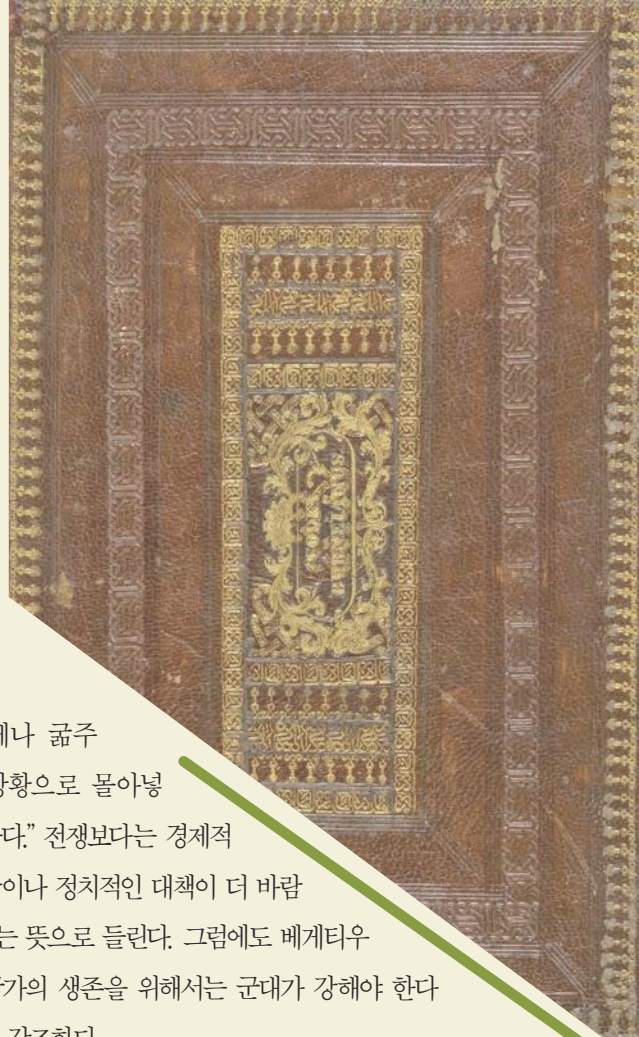
이쯤 되면 왜 베게티우스가 장병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스키피오 장군의 사례를 공들여 소개했는지 이해가 될 듯싶다. 하지만 베게티우스는 결코 ‘전쟁 광(狂)’은 아니었다. 그는 군사학 논고 곳곳에서 전쟁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칼보다는 굽주림으로 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최고의 전쟁 기술이다.” “전쟁에서는 늘 식량을 풍족하게 확보해야 한다. 반면, 적들

은 언제나 굶주리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전쟁보다는 경제적 압박이나 정치적인 대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베게티우스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군대가 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장병들을 훈련시키는 노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성공을 원한다면 행운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칙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강한 전투력을 갖춘 나라를 건드리거나 모욕을 주지는 못합니다.”

베게티우스가 황제에게 진심을 다해 전했던 조언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베게티우스를 모른다. 그러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은 어렴풋이 안다. 군인인 그대는 과연 전장에 나설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근무환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훈련에 쏟아야 하는 열정보다 앞서지는 않는가?

베게티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용감한 군인은 없다. 강한 군기와 훈련을 통해 용감해질 뿐이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나아가, “군대는 노력으로 강력해지고 게으름으로 무기력해진다.”고 충고한다. 이러한 베게티우스의 명언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른다면 그대는 진정한 군인이다. **AF**





Hollywood English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이번 글은 두 고양이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길고양이가 될 뻔 했던 미국 태생 듀이(Dewey)와 길고양이였다가 반려묘(伴侶猫)가 된 영국 태생 밥(Bob)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듀이. 아이오아주 스펜서에서 태어난 갈색 수컷입니다. 때는 1988년 겨울 혹한의 아침. 공립도서관 여성 사서 비키 마이런이 누군가가 버린 생후 8주 고양이를 도서관 밖 책 반납함(book drop)에서 발견합니다. 그날부터 비키는 듀이를 도서관에서 키웁니다. 도서십진분류법(Dewey Decimal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을 창안한 멜빌 듀이에서 따온 듀이는 그녀가 지은 이름 '듀이 리드모어 북스(Dewey Readmore Books)'의 애칭입니다.

도서관에 고양이가 산다는 게 널리 알려지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스펜서에 독서 열풍이 일어납니다. 비키가 지은 이름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양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 많은 책을 읽나요(Do we read more book)?'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듀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듀이와 비키가 함께 산 세월은 장장 19년. 인간 나이로는 90세가 넘는다고 하지요.

듀이가 죽은 후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 비키는 도서관을 떠난 후 브렛 위터와 공동으로 듀이의 일생을 기록한 책을 냅니다. 책 제목은 '듀이'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대스타 메릴 스트립이 비키 배역을 맡아 영화를 찍을 거라는 희소식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번엔 영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A Street Cat Named Bob)'의 주인공 밥. 작품의 내용은 갈색 수컷 고양이가 청년 노숙자 제임스 보웬과 가족이 된 운명적 사연입니다. 길고양이였던 밥은 제임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까요. 제임스는 거리의 약사입니다. 문제는 그가 마약중독자라는 점.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재활지원센터의 여직원 벨이 도움의 손을 내밀니다. 그 덕에 제임스에게는 남루하나마 집이 생깁니다. 가족도 생깁니다. 그의 집에 들어와 눌러앉은 길고양이 밥입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믿으려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녀석이 내게 온 건 아냐.
(He came to me for a reason.)’

제임스와 밥은 한몸이 됩니다. 길거리 공연을 할 때 제임스가 노래하면 밥은 그의 어깨 위에 앉아 구경꾼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둘 다 입에 풀칠할 만큼은 수입이 생깁니다. 그 무렵 제임스는 이웃 베틀과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오래 전 마약중독자 오빠가 죽은 이후로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기에 제임스에게 애정 어린 말을 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제2의 기회는 와요,
하지만 누구나 그걸 붙잡는 건 아니에요.
(Everyone gets a second chance,
But not everyone manages to take them.)”

과연 제임스는 재활에 성공할까요. 하루는 제임스가 길거리 공연을 하던 중 밥을 잃어버립니다. 개와 싸우다가 도망친 겁니다. 그로 인해 제임스는 꼭 받아야 하는 정기 검진을 건너뛸 겁니다. 결국 그는 처음으로 재활 지원센터의 벨에게 실망을 안깁니다. “대마초는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고 ‘빅 이슈’는 부자가 되는 관문이에요.” ‘빅 이슈(The Big Issue)’는 주거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창간된 대중 문화잡지인데요, 그걸 펴내는 곳의 직원이 그렇게 말하며 제임스에게 잡지를 건네 응원합니다. 돌아온 밥과 제임스의 협업은 빛을 발합니다. 시민들이 밥과 인증 사진을 찍고 잡지도 사줍니다. 언론사도 관심

을 가집니다. 제임스와 밥의 길거리 공연 동영상은 조회 수가 백만을 넘깁니다. 한편, 재활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겨낸 제임스가 벨에게 고백합니다. “밥 덕분에 이겨냈어요. 저의 반대편 삶이 어떨지를 밥이 보여줬거든요.” 영화 ‘말리와 나(Marley and Me)’의 원작을 펴낸 출판사가 제임스와 밥의 이야기를 출간합니다. 제임스와 게리 젠킨스가 공동으로 쓴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은 영국에서만 100만 권 이상 판매됐고 약 30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출판 기념 팬 사인회가 열린 서점에서 제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제가 운 좋게
도 제2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답니다.(Luckily
for me, I had some very important companions
to help me with my second chance.)”

축하해주러 온 벨과 베틀과 ‘빅 이슈’의 직원 그리고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응원해준 시민들이 환하게 웃음 짓습니다. 지난 13년간 저에게 귀한 지면을 허락해준 월간 『공군』과 제 글을 읽어준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또 보고 싶은 영화처럼 되십시오.
(May your future be like a movie
you'd want to see again.)” AF

「Hollywood English」는 3월호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트렌드가 보인다

겨울에 살찌는 이유? '체온이 떨어지면, 살이 찐다'

두툼한 외투를 벗어 던지고, 얇은 옷을 꺼내 입자마자 눈에 띄는 온몸의 군살들! 혈렁하고 두툼한 옷에 익숙해지면 은근히 찐 군살에 무더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잊지 마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빠르다는 사실!



겨우내 살이 찌는 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돌아다니기 싫어 운동량이 줄어들고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혈렁한 옷을 입어 둔감해진 탓도 있지만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몸의 중심부에 충분한 열이 생성되지 않으면 1년에 약 2kg 체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다시 말해, 몸이 차가울수록 살이 찌고, 몸에 충분한 열이 보존되어야 살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볼로냐 대학교의 '피에트로 코르텔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매일 몸의 열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결국 열량을 꾸준히 소모할 수 있는 운동과, 신진대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 <체온 높

여 병을 다스리는 음식과 치료법 50>의 저자인 이시하라 유우미 박사는 특히 신체 중 목, 겨드랑이 밑, 등 밑, 신장 주변의 보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부위엔 몸의 열을 내는 '갈색지방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일주일 만에 4kg 감량? 바나나 다이어트



스타들이 가장 즐겨 하는 다이어트! 가수 전소미는 "매일 세 끼를 바나나만 먹고 일주일 만에 4kg을 감량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배우 모리 구미코는 한 달 반 동안 실행해 7kg를 감량해 바나나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배우 박하선, 가수 정용화와 서인영도 바나나 다이어트 마니아랍니다.

바나나는 장 기능을 돕는 식이섬유 '펙틴'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축진을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칼륨도 많아 부기의 적인 '나트륨' 배출에도 탁월하죠. 탄수화물이 풍부해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바나나는 한 개(154g)당 110kcal입니다. 가수 전소미처럼 세 끼를 바나나만 먹는다면 하루 약 330kcal만 섭취한 셈이군요! 이는 좀 무리한 다이어트 방식으로, 영양소 결핍으로 생리불순이나 식이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끼니마다 우유, 아몬드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선 아침에 물과 바나나를 먹고, 점심과 저녁엔 저염식으로 소량 식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바나나 다이어트랍니다!

미지근한 물로 5kg 감량? 백탕 다이어트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사실 이 물 마시는 방법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식힌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백탕 다이어트’가 바로 그것!

‘백탕’이란 인도의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에 등장하는 치유의 물입니다. ‘불의 기운을 받은 맹물을 따뜻하게 마신다’는 의미로, 백탕은 ‘몸의 소화력을 높이고, 위장을 정화해 독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입니다. 다 끓었을 때, 뚜껑을 열고 약 15분간 더 끓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이 물을 잔에 따라서 40~50도까지 미지근하게 식힙니다. 손을 잔에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자레인지(500w)에 약 1분 30초를 데우고 식히면 됩니다.



이 ‘백탕’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식사 도중, 그리고 잠들기 전 약 200ml 가량을 10분간 천천히 마십니다. 하루 800ml 이하의 백탕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죠! 그냥 물일 뿐인데 웬지 쓰다고 느껴진다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것. 해독이 되면 백탕이 아주 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배우 후카다 쿄코는 백탕 다이어트로 무려 5kg을 감량했답니다. 물의 힘이 꽤 대단하죠?

이 ‘백탕’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식사 도중, 그리고 잠들기 전 약 200ml 가량을 10분간 천천히 마십니다. 하루 800ml 이하의 백탕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죠! 그냥 물일 뿐인데 웬지 쓰다고 느껴진다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것. 해독이 되면 백탕이 아주 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배우 후카다 쿄코는 백탕 다이어트로 무려 5kg을 감량했답니다. 물의 힘이 꽤 대단하죠?

문질러서 20kg 감량? 지압 다이어트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화제의 책, 뷰티 인플루언서 모토 지마 사오리의 <문질러서 빠지지 않는 살은 없다>는 셀프 마사지로 1년 3개월 만에 20kg을 감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갑자기 살이 빠지는 방법은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몸을 지압하면 부위별로 군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책뿐만 아니라, 모토 지마 사오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군살 빼기 지압 노하우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스트레칭처럼, 매일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뚝: 두 손으로 손목을 쥐고, 겨드랑이까지 쪽 밀어 문지릅니다. 흔들어 털어 내듯이 문지르는 것이 중요! 그리고 다시 주먹을 쥐어서 손가락 마디로, 팔뚝을 꺾꺾 눌러줍니다. 다음,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팔뚝의 바깥쪽 군살 부위를 손으로 마구 꼬집어주세요. 겨드랑이도 두 손으로 꼬집으며 문지르세요!

*아랫배: 손가락을 접어, 손을 고양이 발바닥처럼 만들어서 갈비뼈 아래쪽을 아래 위로 세게 문지릅니다. 숨을 내쉬면서 명치에서 아래로 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허벅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일자로 펴 줍니다. 핀 다리의 허벅지 안쪽을 주먹으로 밀어 올리듯이 문질러 줍니다. 그러고 나서, 혈렁한 허벅지 살을 꼬집고 주물러 마무리합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엔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앞서 소개했던 ‘백탕’을 마시는 것도 좋겠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된다고 하네요! 지압을 무조건 ‘세게’ 꼬집고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르고 꼬집고 비틀고 누르고 두드리고 주먹으로 미는 등 주기적으로 자주 군살을 털어 준다는 느낌으로 지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도중 너무 아픈 곳이 있다면 셀룰라이트가 뭉친 곳입니다. 아픈 곳일수록 중점적으로 문지르세요! AF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트렌드가 보인다>는 연재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는 그림 ●●●●●●●●

평점사회

여러분은 좋은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친구가 추천해준 영화,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 등
각자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은 사람이 신뢰하는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평점'입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직접 매긴 평점의 평균을 내거나, 영화
평론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네티즌들 사이
에서는 평점이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면 명작', '7점 미만이면
망작'이라는 믿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점이 높은 영화는
'다수가 재밌게 본 영화'를 의미하고 결국 다수가 재밌다고
한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평점이 높은 영화임에도 재미가 없었던 경험,
평점은 낮지만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영화를 발견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너무 기대를 하고
봐서 실망을 했거나,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기대 없이
보니 예상하지 못한 재미를 느낀 것일 수 있죠. 각자 좋아
하는 장르, 배우, 분위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점이
높은 영화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허황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영화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식당에 갈때도 인터넷에 맛집을 검색해봅니다. 맛집에도 역시 평점이 붙어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반대로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평점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남긴 평점과 리뷰는 마치 객관적인 지표처럼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입맛에 맞게 평가된 음식을 먹으며 그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인 듯 우리의 혀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평점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평점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문화생활, 식사的评价지표가 남의 취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밥을 먹으며 순수하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영화를 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우리의 취향을 대변해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다수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는 평점을 무시하고 그저 내 취향에 맞는 책 한 권, 영화 한 편을 탐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들의 취향이 아닌 나의 취향을 확실히 알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AF



기준의 기준 나 이렇게 산다

최근 관찰예능이 대세다. 어머니의 시선으로 노총각 아들의 생활을 바라보는 SBS <미운 우리 새끼>, 연예인의 하루 일과를 매니저와의 '케미(상호작용)' 속에서 그려내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수많은 관찰예능이 인기다. 그중 관찰예능의 문을 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MBC <나 혼자 산다>다.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해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 형태로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되는 <나 혼자 산다>는 2013년 3월 22일 첫 방영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어 2019년 2월 현재,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평판 1위에 올랐다. <나 혼자 산다>에 열광하는 심리는 뭘까? 이번에도 윤 소위와 함께 고민해보자.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살지 않는 사람. 군인도 마찬가지다. 생활관에 살면서 혼자 살고 싶어도 혼자 살 수 없는 장병들, 잦은 전속으로 가족이 있음에도 혼자 사는 간부들.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다거나,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은 생각보다 이루기가 어렵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KOSIS(국가통계포털)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28.6%로 2005년의 20%보다 상당 수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밥', '혼술' 등은 이제 트렌드를 넘어 메가트렌드가 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나 혼자 산다>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다. 출연자들끼리 함께 여행을 떠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시청자들은 더 즐거워했다.

실제로 <나 혼자 산다>는 포맷이 조금 바뀌면서 메인 예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전에는 정말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함께 MT를 떠나고 파티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자주 다룬다.

를 여는 등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더 자주 보여주고 있다. 메인PD인 황지영 PD도 한 인터뷰에서 출연자들끼리 더 가까

워지고 함께 놀러 다니게 되면서 오히려 시청자들의 호응이 더 좋아졌다고 밝혔다.

<나 혼자 산다>의 출연자들은 모두 혼자 살지만 다 같이 놀러가고 싶을 때는 함께 여행을 떠난다.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 이렇게 '외롭지 않게 혼자 살기'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선 매우 어렵다. 일에 치여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있으면 또 돈이 없다. 우리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한다.

혼자 사는 것은 편하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48.1%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외롭더라도 편한 길을 택했다. 'KB금융자주 경영연구소'가 시민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고 반대로 가장 만족하는 이유는 '편함'이었다. 혼자라서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오히려 편한 사람들,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었다. 사람들은 편하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개인방승으로 말이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사이버 함께하기를 선택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혼밥'을 하면서 '먹방'을 보고 어두운 방안에서 외로이 개인방승을 보며 BJ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한다. 그러다 조용히 사색을 즐기고 싶으면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으면 된다. 외로움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된 거다. 제3자가 보면 여전히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기 위해 선택한 '외로움'과 '편함' 사이의 타협이었다.

개인을 100% 만족시키는 주거형식은 있을 수 없다. 혼자 살면 외롭고, 여럿이 살면 불편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주거형식에 조금씩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인의 일상을 몰래 훑어보는 관찰예능이 그토록 인기를 끄는 건 아닐까. 20여 년을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온 사람과 함께 사는 생활관, 가족과 떨어져 외로이 사는 BOQ,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저 그 공간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여러 명에서 함께 사는 공간에서 나만의 영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기 위한 각자의 방법 등 여러분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쓸쓸한 '나'의 주거공간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AF

기준이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오른쪽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2019
03
4 8 9

우편엽서

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12.1~2019.11.30
제501군사우체국
제32333-40027호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백일장 일흔여섯 번째 주제

외출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seawhale98@af.mil

인 터 넷(E-mail) : afzine@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마감일 : 3월 31일까지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월간 『공군』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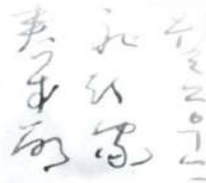
위의 엽서에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채택된 엽서는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별도 주첨을 통해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흑백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의 기억속에 공군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군박물관에서는 2019년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기억, 공군의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수집대상

-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 메모, 편지, 수첩, 일기, 일지, 수양록, 문서 등
- 신문, 도서, 포스터, 화보 등
- 문구, 교과서, 시험지, 노트, 성적표, 상장, 음반 등
- 설계도, 공구, TO, 장비 등
- 항공기도입, 부대창설관련 기념품, 그림, 포스터 등
- 공군생활자료, 급여명세서, 임관반지, 스포츠용품 등
- 헬멧, 선글라스, 마후라, 마크, 전투복, 조종복, 정비복 등
- 기타 알리고 싶은 공군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자료



월로우스비행기양성소 1920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우)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사서함 335-1호
전화 : (043)290-6071~6075 팩스 : (043)293-6185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Blank lines for writing comments or letters.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03
4 8 9



「마음의 소리」



장경윤 (서울 동작구)

창군 70주년! 공군은 나와 땀동갑이다. 또한 나는 기술병 입대 날짜도 10월 1일이다.(180기) 지난해 서재를 정리하다 50여 년 전, 공군에 복무할 때 받은 방공방첩 표어(‘초소 안 단꿈 속에 스며드는 무장공비’) 우수상 상장이 있어 공군사관학교 공군 박물관에 기증했다. 그 당시 무장공비 침투와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들이 발생.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공군의 방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선진 공군’을 만들어낸 것은 선배님들의 애국정신과 후배님들의 나라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

편집실 생생한 옛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엽서를 읽었습니다. 혹시 공군지에 실린 배너광고를 보고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상장을 기증하신 것인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편집실 일동은 무척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공군을 만들어낸 또 한 명의 선배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조한석 (경기도 의정부시)

새해 첫 시작을 깨우는 신년호 『공군』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는 르포르타주 코너의 ‘하늘길을 여는 사람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사실 공군이라고 하면 전투기를 타고 하늘에서 싸우는 군대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사 속 주인공들과 같이 땅과 물, 전천후 장소에서 적진을 돌파하는 특수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강인한 눈빛과 꼭 다문 입술의 주인공들이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군의 공정통제사와 항공구조대가 있는 한 우리 공군은 하늘은 물론이고 땅과 물 위에서도 임전무퇴, 백전백승 무적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 속의 또 다른 공군, “First There” CCT를 응원합니다.

편집실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지만, 그 힘은 지상요원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솟아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통제사들은 적전에 먼저 침투하여 하늘길을 여는 ‘높은 힘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의 공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승민 (대구 동구)

안녕하세요. 군수사 81항공정비창 일병 이승민입니다. 저는 메일은 안 봐도 『공군』은 꼭 챙겨보는 선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선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소수 인원 부대에 막내로 와서 손까지 벌벌 떨며 긴장하고 있던 저를 엄청난 환영식과 함께 환영해준 우리 선임들 덕분에 걱정 가득했던 군생활을 웃으며 보내고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웃으며 괜찮다고 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가르쳐주고 해결해주는 선임들을 두어 제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란 것을 느낍니다. 이승현, 송준오, 권재현, 윤영채, 서민성, 신건 병장님, 이재경, 김병욱, 강성목, 장기웅 상병님, 이형준, 강신호 일병님 그리고 주임원사님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이 찬란한 날이 되길 응원합니다!

편집실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행복한 병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함께하는 전우들의 관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심 넘치는 선임들에게 이 편지가 깜짝 선물이 된다면 좋겠네요. 메일은 안 봐도 『공군』은 챙겨보는 열혈독자들에게는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행복을 대대로 물려주기 바랄게요.



조예람 (부산시 서구)

요즈음 생각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된 『공군인의 마음 건강 : 마음의 보약, 긍정심리』를 읽고 세상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생각과 몸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이번 기회에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저 자신을 많이 괴롭혀왔는데, 이제는 남과의 비교보다는 제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저 자신 안에 있고 나에게 인색하지 않고 나를 위하는 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도움이 되고 힐링되는 기사였습니다.

편집실 우울한 마음을 『공군』의 기사로 위로 받으셨다니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합니다. 『공군』이 공군 소식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기사를 실는 것은 이렇듯 독자님들께 다양한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독자님이 다짐하신 내면의 행복 찾기를 편집실도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움을 드리는 월간 『공군』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경기도 부천시)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바뀐 종이 포장지에 단점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우편함에서 확인했을 때 가장자리 부분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배송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자마자 찢어져 있어서 조금 슬펐습니다. 아직은 찢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2월호 배송상태도 확인해보고 또 찢어져서 도착한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 70주년, 월간 『공군』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필승!

편집실 찢어진 포장지를 보고 슬펐다는 이야기에 편집실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편집실은 환경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비닐포장을 종이포장으로 변경하였는데, 종이에 코팅을 할 경우 분리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의 무코팅 재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공군』 배송도 포기할 수 없는 일하기에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정 어린 의견을 보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혹시 포장지 훼손으로 『공군』도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편집실로 꼭 연락주세요!



강건우 (대전 유성구)

(* 업서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틀린 맞춤법도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초등학교 2학년 강건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하나 있어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ㅠㅠ 공군 아저씨들, 공군이 돼려면 어떻게 해야 돼나요? 정말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공군 아저씨들, 그리고 저는 꿈이 크래이에이터예요. 근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우 올림-

편집실 건우 독자님! 너무나도 귀여운 손글씨 사연에 편집실 일동은 얼굴에 삼촌 미소가 뽐뽐 솟았답니다. 저도 수학은 너무나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고민, 어떤 기분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군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장교, 부사관, 병사가 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건우 독자님이 어떤 공군이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방법을 알아보길 추천합니다. 이번에 보내준 업서처럼 진심을 담아 콘텐츠를 만든다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크리에이터도 꼭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공군에서 만나요!





4 8 9